



기획시리즈

이상웅 / 문의처 향촌조경수

전화 (0339) 353-0747

# 회양목의 묘목 및 성목 생산



▲ 단독수로 조형한 회양목

**회양목은** 반음수로 음지쪽에서도 잘 견디며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공해에도 매우 강하여 조경수목 중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종이라 할 수 있다.

몇년간 과잉생산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여 재배자가 별 소득을 보지 못했으나 금년부터 묘목을 생산하여 성목 재배에 힘쓴다면 높은 소득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근년에 겨울에도 붉은색으로 퇴색되지 않고 초록색으로 월동하는 변종이 선발되어, 이를 다량으로 삼목번식하여 재배하여도 상품의 고급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양목은 비배관리만 잘 하면 비교적 토양을 가리지 않는 수종이지만 물빠짐이 좋은 붉은 참흙(양토) 땅이 가장 이상적이다.

### 1. 묘목 생산

회양목은 비교적 삼목도 잘 되는 수종이지만 일반적으로 종자를 파종하여 실생묘를 생산하게 된다.

#### 1) 종자 채취

회양목의 채취시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하여 7월 중순이 적기라 할 수 있다. 회양목 종자가 고가인 경우에는 강원도 영월 및 충북 단양쪽의 자연생 종자를 6월에 서둘러 채취하게 되므로 종자를

언제 채취하였는가는 꼭 알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이들 종자는 종자가 성숙하기도 전에 채취하여, 파종후 발아가 전혀 않되든가 또는 발아가 미약하여 실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7월 10일경부터 20일 사이에 완숙된 황색을 띠는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해야 완전한 종자임을 기억하자.

#### 2) 종자의 정선

완전히 성숙된 종자를 하나하나 따서 그 안의 순전한 종자만을 가려내는 과정을 정선이라 하는데, 이 정선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채취한 구과는 공기유통이 잘 되는 양파자루 혹은 모기장망으로 만든 자루에 넣어 시렁 혹은 나무에 걸어 놓은후 자주 흔들어 건조시켜 구과가 벌어지도록 정선한다.

구과가 잘 벌어지지 않으면 자루를 물에 20-30분 담궜다 다시 건조시키는 것을 반복하면 잘 벌어진다.

양지쪽에 비닐지나 혹은 장판을 깔고 건조시키는 도중 종자가 튀어 나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비닐지로 덮으면 종자가 열을 받아 익게 되므로 발아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종자업자는 위에 기술한 사항들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상없는 종자를 양심적으로 공급할 것을 당부한다.

#### 3) 종자 구입의 요령

자기가 직접 종자를 채취하지 않고 구입할 경우 종자의 감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종자를 칼로 잘라 확대경으로 관찰해보아 흰색으로 투명하면 완전한 종자이다.

종자의 각질이 윤기가 없으며 배가 황색을 띠는 경우 이는 묵은 종자 혹은 정선 과정이 잘못된 종자이다.

또한 종자를 저울에 달아 보아 100의 무게가 6kg 정도이면 매우 충실한 종자이고 5kg 미만의 종자는 발아율이 의심스러워 구입하지 않는것이 좋다.

회양목 종자를 채취한 다음해 봄에 파종하면 전혀 발아가 되지 않는다.

7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그해 8월에 파종하는 것이 공식으로 되어 있으나 경험에 의하면 8월말 내지 9월초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게 생각된다.

이는 비가 많은 계절에 파종하면 종자가 궂을 염려가 있으며 또한 파종을 일찍하면 그해 뿌리가 충분히 내려 다음해 봄에 발아가 빨리되어 된서리의 해를 받아 실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파종 준비는 가급적 미리 서둘러 하는 것이 모든 점에 유리하다. 적어도 파종 15일 전에는 준비를 마치도록 한다.

파종 준비라 하면 거름을 넣고 갈아 엮는 작업을 말하며 거름 넣는 정도는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비옥도가 중간 정도 라면 300평을 기준하여 완숙퇴비 2000~3000kg, 복합비료 3포 정도, 및 살충제를 넣고 갈기를 실시하여 둔다.

로타리 작업은 파종시에 실시 하며, 파종상의 넓이는 1m로 만든다.

파종량은 대략 10ℓ에 대하여 100~150평으로 실시한다.

파종순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파종상의 윗면을 매우 관 판하게 각재로 고른다.

종자 파종을 위하여 관리기에 파종상을 다듬는 기구를 부착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나. 벼 못자리 하는 방식으로 흙어 뿌림을 실시한다.

다. 로울러로 씨뿌린 파종상 위를 진압한다. 이는 뿌린 종자가 흠뻑기 할때에 물리지 않기 위함 이며 또한 흠입자와 종자가 잘 밀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 눈금이 사방 1cm인 체로 흙을 쳐서 1cm가량 흠뻑기를 실시한다.

마. 다시 로울러로 복토한 흙을 진압한다.

바. 살충제를 뿌린다. 이는 벼 짚을 덮었을 때에 딱정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사. 토양입자가 안 보일 정도로 짚 덮기를 실시한다.

짚대신에 소나무 잎을 깔어다 덮으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는



▲ 소형 회양목

아니다.

아. 짚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말뚝을 박고 나이롱 줄을 띄운다.

#### 5) 파종 후의 관리

위와 같이 파종해 놓으면 그해 촉이 터서 어린 뿌리가 땅속으로 2~3cm 정도 자라 월동한 후 봄에 지상으로 발아가 된다.

파종 후 20일 가량 경과되어 파 보아 촉이 잘 트면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촉이 트지 않고 종자가 변질돼 있으면 이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종자의 채취에서 정선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봄에 규격이 큰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닐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짚을 완전히 견고 비닐지를 씌워 주어야 하므로 자연 기온에서보다 일찍 발아되어 어느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냉해를 받게 되므로 너무일찍 서둘지 말고 3월 중순에서 하순에 실시한다.

위 기술한 바에 의하면 묘목의 생장기간이 매우 길게 되므로 규격이 좋은 묘목을 생산 할 수 있으나 역시 서리의 해를 받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하고 또한 잡초가 일찍 발생하여 노동력이 많이 요구됨이 결점이 되겠다.

여하튼 초기에 발아가 잘된다 하여도 두잎 벌어지기 전까지는 세심한 관찰과 정성을 다하여 관리해야 된다.

발아가 잘된 후에도 후기생장을 위하여 항시 토양에 습기가 있도록 유지시켜 주며 제초관리에 힘쓴다.

피종상에 화분과 잡초인 바랭이, 피등이 많이 발생하면 「나무유제」를 살포한 후 광엽잡초만 제거하면 노동력이 절약된다.

피종상에 있어서의 덧거름주기는 금한다. 특히 화학비료를 주면 묘목이 도장하여 월동후 고사 묘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완속 퇴비를 많이 넣고 밑거름을 충분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 2 성목재배

### 1) 묘목식재

위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회양목은 토양을 가리지 않으나 배수

가 잘되지 않을 경우 뿌리가 발달되지 못하여, 잎의 가장자리에 황화현상이 생겨, 생장이 불량해지는 관계로 배수에 완벽을 기한다. 황화현상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름이 너무 부족한 경우, 즉 영양부족에도 있다.

회양목의 재배는 가급적 붉은 참흙땅으로 배수가 잘 되는곳을 택하자.

밑거름 넣기는 피종할 때와 비슷하게 퇴비를 충분히 넣고 식재하자.

식재상의 넓이는 1m로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골의 깊이를 20cm 가량으로 하고 3주를 한포기로 하여 심는다.

심는 거리는 사방 약 20cm가 되도록 1m상에 5줄씩 식재한다.

이렇게 식재한 후 2년이 경과되면 거리가 너무 가까와 다섯줄 중 2줄을 기계적으로 빼내어 자리 넓히기를 실시한다.

### 2) 수형 만들기

회양목의 일반적인 수형은 지표면에 공을 놓아 약간 가라 앉힌 듯한 원형으로 깎아 다듬는 것이다.

이러한 수형이 수요가 가장 많으며 또한 수형 만들기에 용이하다.

이형은 처음부터 둥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묘목 식재 1년 후에 20cm가량 남기고 위를 잘라주어 수고 생장을 억제하고 수관폭이 발달 되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유도한다.

식재 2~3년 후에도 계속하여 밑 가지를 발달시켜가며 원의 윤곽을 잡아 전정하여 간다.

한번에 강전정을 하지 말고 나무의 생장을 위하여 어려서는 윤곽만을 잡아 전정하고 3~4년후에 강전정을 하여 속이 팍차도록 전정하여 준다.

전정하는 시기는 늦가을부터 봄이 나오기 전에 실시함이 좋고 가능하면 8~9월에 너무 도장한 가지를 다듬어 주면 더욱 좋다.

몇주 안되어 취미로 기를 때에는 외대로하여 지하고를 높이 띄우고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한주 한주 그나무의 가지 배열 상태나 혹은 생김새를 보아 탐형, 혹은 현애형, 가이즈까 향나무처럼 키를 자유로이 높여 가며 길러주어도 좋은 예술적인 나무가 된다.

### 3) 비배관리

위에서도 기술했으며 다른 수목 재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름주기는 나무의 휴면기 때에 한 차례만 실시하며,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비료가 계속되도록 하여 준다.

퇴비넣기가 형편이 안되면 계분 비료를 시비하자.

유기질 비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거름기가 부족할듯 하여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더욱이 5~6월 이후에 시비를 하면, 겨울에 줄기가 터져 동해를 받게 되어 고사하기 때문이다.